



ハッスル黄門

이바라키현 조소보건소에서 알려드리는 중요 정보
일본에서 사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결핵의 조기발견과 공비부담제도에 의한 치료에 관하여

1. 처음에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지역, 남미의 브라질 등에서는 결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핵 보균자가 일본에 와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발병하는 일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2. 조기 발견을 위해

일본에서는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 년에 한 번은 다음 검진 중 하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직장 정기 건강진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법률상 종업원에게 1 년에 1 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2) 각 지역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거주지의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직장 검진이 없거나 자영업인 분, 전업주부인 분 등이 받으실 수 있는 검진입니다. 흉부X선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진 일과 장소, 요금 등 문의 사항은 거주지 시야쿠쇼(市役所)나 야쿠바(役場)에 문의하십시오.

(3)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때 하는 건강진단

결핵에 걸렸는지를 판단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검진 일, 장소 등은 보건소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검진비는 법률상 무료입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들으면!

3. 안심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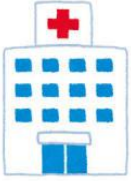
흉부X선 검사 결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결핵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검진을 받으십시오.

결핵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핵균이 담이나 재채기를 통해 확산, 주위 사람에게



감염되며, 악화하면 생명의 지장도 초래합니다. 빠른 치료로 결핵을 완치하십시오.

◎ 공비부담제도



결핵 치료는 증상이 호전되어도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장기간 약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6~9개월간)

일본에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공비부담제도가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의 결핵 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입원 치료

결핵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비는 전액 공비 부담으로 무료입니다.

※단, 전년도 소득에 따라 최고 월 2만 엔의 자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원 치료

조기발견으로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원 없이, 일하면서 통원과 약 복용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사나 약 일부가 공비 부담으로 됩니다.



결핵 증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공익재단법인 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TUBERCULOSIS, JAPAN)

<http://www.jata.or.jp/index.php>

○Tuberculosis Telephone Consultation Service

<http://www.jatahq.org/headquarters/index9e.html>

○stop TB by dots!

<http://www.jata.or.jp/rit/rj/TB2008/start.html>

